

농업인 월급제 원활한 시행 '맞손' '미세먼지 알리미' 시범설치

무주군-무주농협-구천동농협, 업무협약... 대행수수료 기존 1%→0.4%로 인하

무주군이 4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29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무주농협(조합장 박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이날 협약에서 무주군과 농협(무주·구천동)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협약기관 대행 수수료를 기존 1%에서 0.4%로 인하하기로 협의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은 농업인 월급제 추진과 관련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과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농협(무주·구천동)에서는 농가와 농산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하는 것부터 농업인 월급을 지급하고 정산·보고하는 일까지 맡아하게 된다.

협약서에는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사과, 포도 등 12개 품목)와 ▲단가(2020년도 농협자체수매 기준 금액의 50%), ▲시행기간(2021.4.~9. 6개월간), ▲지급액 한도(30~150만원), ▲이자보전 이율(5.0%), ▲대행 수수료(선급금 지급액의 0.4% 인하) 등을 명시한 내용들도 담겼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협과 행정의 손 맞잡고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농촌을 살리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군에서는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이 4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9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무주농협(조합장 박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가와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협(무주·구천동)이 4~9월까지 6개월간 약정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하고 무주군에서는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 참여자 수는 2018년 113명, 2019년 142명, 2020년 19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출하약정 품목을 사과와 포도, 블루베리 등 12개 품목으로 확정하면서 212명이 신청을 마쳤다.

농업인 정 모 씨(57세, 무풍면)는 "수확기 돈이 많이 들어올 때야 걱정

이 없지만 비수기에 생활비도 그렇고 농자재 구입도 그렇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으니까 농가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제 20일이면 월급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든든하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 한해 4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을 비롯한 일손 돕기와 농작물 재해보험,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갈 계획으로, 이들 사업이 농업인 복지 향상과 농가 경영 안정, 농업인 역량강화를 주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다독이고 무주농업 발전을 도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초미세먼지 등 12가지 대기환경 정보 실시간 표출

진안군은 29일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등 대기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미세먼지 알리미'를 시범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증가와 대·내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차량과 주민통행이 많은 군청 앞에 설치했다.

미세먼지 알리미는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 지수, 일산화탄소(CO) 등 총 12가지의 대기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시설로 진안군 보건소 옥상에 위치한 진안군대기오염측정망으로부터 정보를 전송 받는다.

알리미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파랑(좋음), 녹색(보통), 노랑(나쁨), 적색(매우나쁨) 등 총 4단계의 색상 조명으로 표출해 대기환경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통신호등 형태의 LED 전광판으로 대기질 상태를 표시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주민들의 야외활동 자제 등 신속한 대응 유도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발생하는 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장들에게 즉각적으로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기오염 정도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미세먼지 알리미를 통해 외출 자제 등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일제점검

장수군이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가축사육업 등 총 1,315개소이며, 이중 허가 농가가 460농가, 등록 농가가 855농가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적정한 사육시설, 방역시설·장비 구비여부,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준수 여부, 휴·폐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축사육 시 준수사항을 담은 별도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농가 계도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또한 일제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위반정도가 중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의거 허가취소,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가동물방역시스템 등과 비교하여 불일치 정보를 현행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할 예정이다.

성영은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 농가들이 가축사육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반디랜드 내 어린이 위한 동물체험장 운영

무주군이 반디랜드 내 어린이들을 위한 소규모 동물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았던 동물체험장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문을 열고 어린이들과 관광객들을 맞는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은 무료다.

동물체험장에서는 어린이들이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다람쥐를 비롯한 면양, 닭, 토끼 등을 접할 수 있다. 이들 동물들은 어린이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동물이다.

군이 어린이들과 관광객들에게 꿈과

체험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3억8,700만원(국비 1억8,600여만 원 포함)을 들여 조성했다. 동물체험장에 온 관광객들은 면양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으며,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이곳을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용 마스크 등은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방문자 관리대장 기록과 손 소독은 필수 준수 사항이다. 어린이와 가족, 관광객들은 동물들과 친숙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뿐 아니라, 방문객 유입 증가로 무주군 관광산업 이미지에 상승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시민대학 운영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과 지역사회 상생발전과, 환경리더 양성을 위한 국립공원 시민대학(덕유산 아카데미) 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덕유산 아카데미'는 덕유산의 자연과 생태, 역사와 문화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립공원과 시민이 긴밀한 유대감으로 생태복지실현을 증진하고자 다양하고 유익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오는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운영되며, 이론 학습(6강좌), 체험학습(3강좌) 등 총 9개 강좌를 각 분야 박사와 전문가들이 흥미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덕유산사무소 및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공원과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성인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과정 및 신청 방법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누리집(www.knps.or.kr/deogyu)에서 확인 후 신청서를 다운받아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20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품질 좋은 천마종균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

천마의 주산지 무주군이 자체 생산한 우수한 천마 종균을 생산해 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무주군은 관내에서 생산한 천마종균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5월까지 무주군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군은 천마생산 수확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천마종균의 질적 개선을 위해 배양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배양 과정 중 오염을 최소화시켰다. 천마 종균 신청량은 지난해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종균에 대한 농가들의 호응도가 높다.

기술연구과 연구개발팀 이장원 팀장은 "천마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에 따라 농가 부담감이 줄어들어 농가 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제1호 착한사찰 현판 '마이산 탐사'에 전달

마령 희망 천탑 쌓기 운동 전개

진안군 마령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수현, 동상진)는 29일 마이산 탐사를 찾아 진안군 제1호 '착한사찰' 현판을 전달했다.

이날 착한사찰 현판 전달식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령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표해 마령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착한사찰이란 일정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에게 주는 타이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작한 착한사찰 현판을 증정한다. 1호 착한사찰로 임명된

'마이산 탐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로 주지스님인 진성스님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착한사찰(월 3만원 정기나눔 하는 단체)에는 마령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착한가게(월 3만원 정기나눔 업소)에는 오곡상회, 비둘기회관, 편백가구점이 선정되어 같은 날 현판이 전달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마령면에는 '착한가게' 4개소, '착한사무실' 1개소, '착한사찰' 1개소, '착한가정' 10개 가정이 정기기탁을 신청하여 희망을 기부하고 있다.

마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2월부터 복지허브화 연합모금을 위해 매월 1개 탐 당 1만원 이상 3만 원 상한의 정기기탁을 받아 월 3만원 이상 기부 업소 및 기업에는 착한가게 현판을, 월 2만원 이상 기부 가정은 착한가정 액자를, 월 1만원 이상 기부 개인에게는 탐 번호를 부여하는 '마령 희망 천탑 쌓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3월 26일 기준 71개의 탐이 쌓여져 올해 목표인 200탐을 향하여 순조로운 향해를 하고 있다.

한편 이 운동을 통해 모여진 기부금은 마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계획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발굴 및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쓸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